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 순수문학자의 사회적 관심 -

李 海 年*

차 례

- | | |
|------------------------|--------------------------------|
| I. 행동주의 논의의 시작과 순수 문학자 | IV. 유치진과 능동정신 |
| II. 이현구와 행동적 휴머니즘의 도입 | V.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론과 순수문학자의 사회적 관심 |
| III. 함대훈의 지식 계급론 | |

I. 행동주의 논의의 시작과 순수문학자

본고는 우리문단에서 1935년 1월부터 1936년도까지 걸쳐서 논의되었던 행동주의 논의의 전체적 양상과 특성을 살펴서,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에 있어 하나의 의미있는 흐름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우리문단에서 초기의 행동주의 논의가 순수 문학자들에 시작된 것은, 우리 문단의 순수문학자들이, 인류공동의 문제를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직접 뛰어들었던 프랑스 지식계급에게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아울러 그 논의의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데 그 목적을

* 동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임강사

둔다.

1-1. 행동주의 논의의 시작과 전개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李軒求의 「불문단사조의 동태」(1935.1.1. 『조선일보』)부터 였다. 여기서는 페르낭테스 對 지드의 논쟁을 소개하였는데, 戚大勳이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문학의 장래성」(『조선일보』, 1935.3.3~4.6)에서 페르낭테스의 「지드에의 공개장」이 지식계급에게 준 충동을 말하고, 우리문학의 발전을 위해 우리문단에서도 급진적인 지식계급인 연맹을 성립시키자고 한 것과, 이어서 발표된 李軒求의 「행동정신의 탐조」(『조선일보』, 1935.4.13~19)에서 페르낭테스의 「문학과 정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한 데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문단에서의 행동주의 논의는 일본에서 소개된 것보다 6개월 가량 후에 시작되고, 불안의식 및 능동정신, 지식계급 논의와 섞여서 관련되게 전개되는데, 柳致眞 「일본문단의 불안과 능동정신의 문학-동경문단·극단 전문抄-」(『동아일보』, 1935.5.23)과, 朴致祐의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동아일보』, 1935.6.12~14) 및 田元培의 「불안의식의 본질」(『동아일보』, 1935.7.20)로 이어진다.

이는 일본문단에서 행동주의가 논의된 시기가 짧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사조가 동시에 섞여서 중복, 관련되게 논의되었던 상황과 닮아있다.

그후 세계의 불안과 지식계급문제, 프랑스와 일본문단 상황과 행동주의 문학 이론 및 조선적 가능성을 소개한 洪曉民의 「행동주의 운동의 검토 — 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조선문단』, 1935.8), 「행동주의의 이론과 실제」(『신동아』, 1935.9)와, 유물론적 입장에서 지식계급의 反動性을 들어 능동정신을 부정하고, 홍효민의 위 논문을 비판한 韓曉의 「『행동주의 문학론』 비판-지식계급과 능동정신-」(『조선중앙일보』, 1935.10.17~25), 金文輯의 「동경문단의 近貌-행동주의를 중심삼아-」(『조선일보』, 1936.1.4~8)에 이르러 행동주의 논의는 절정에 달한다.

또, 이 무렵 「국제작가 대회」와 관련된 논의로 이현구의 「국제작가 대회

가 개최된 동기와 원인의 필요성」(『조선일보』, 1936.1.1~3)과 단평 「정열의 빈곤」(李鳳九,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2.9), 「巴里의 국제문화 옹호 연맹」(如水, 『조선일보』 「探報台」란, 1935.8.31.), 「擬製左翼」(천명,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5.10.23)등이 속출하며, 林仁植(林和)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문학과 行動과의 관계」(『조선일보』, 1936.1.8)를 논하기도 하지만, 행동주의의 열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후 행동주의의 의의를 관련되게 언급한 논의로서 金午星의 「문제의 시대성-인간탐구의 현대적 의의-」(『조선일보』, 1936.5.1~10)와 兪鎮午의 「현문단의 通弊는 리얼리즘의 인식」(『동아일보』, 1937.6.3), 임화의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현대문학과 ‘휴머니티’의 문제-」(『조광』 4권4호, 1938.4)이 있지만, 이미 행동주의를 전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는 일본보다 6개월 후인 1935년 1월에 시작하여 1936년 말까지 대략 2년간 계속되다가, 현실에 대한 문화 옹호문제, 지식인의 처세문제에 관련하여 ‘휴머니즘론’으로 이어진다.¹⁾

이러한 행동주의의 논의의 전체적 양상을 필자는, 그 논의의 성향과 논의의 초점 및 시기를 고려하여 크게 세 갈래의 흐름으로 대별한 바 있다.²⁾

I-2. 순수문학자의 사회적 관심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논의를 담당했던 논자들은 대부분 해외문학과 출신의 순수문학자였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 유학하였고, 프랑스 행동주의 사조에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다.

파시즘에 저항하여 유럽 지식인들이 코뮌리즘으로 전향하고, 지적협력대회와 문화옹호국제작가대회를 여는 한편, 불안과 위기를 구제할 새로운 인간형을 추구했던 유럽상황을 직시하였고, 이를 일제 파시즘하의 조선현실 및 우리 지식인이 처한 상황과 결부시켜 대처할 수 있었다.

1) 이해년 ; 「1930년대 한국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2), pp.51~52.

2) 참고 ;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 12) pp.312~313.

이들 초기 행동주의문학논자들의 논의에 있어서 주된 특징을 지적한다면, 이들 대부분이 순수문학적, 예술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실문제에 관심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근10년간이나 프로문학에 눌러 지내왔고, 이데올로기 편향성에 식상되었던 순수문학자들에게는 좌익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새로운 사조라는 점에서 행동주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동주의가 이들 순수문학자들을 자극하고 매료시켰던 것은, 프랑스 지식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었다.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중요한 과제인 인간의 문제 인류공동의 문제를 위해 대동단결하였고, 범세계적인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 뛰어들었던 프랑스 지식계급의 행동은 이들 순수문학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때문에 이들 순수문학자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떠나 사회현실에 눈을 돌렸을 때 당면했던 현실은, 일제 파시즘 하의 조선 사회였고, 그 때문에 압박받는 무기력해진 조선 지식계급이었다. 그 성향이 좌익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동안의 우리문단을 주도해 왔고, 이론면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왔던 프로문학자들이 대부분 구속 또는 수감되었고, 이에 따라 갑자기 공백기를 맞고 침체되었던 것이 당대 문단의 현실이었고, 이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지식인의 현실이었다. 순수문학자들은 이러한 불안과 침체의 원인이 일제 파시즘임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일제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서, 또한 불안극복의 수단으로서 행동주의 또는 능동정신을 선택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Ⅱ. 이현구와 행동적 휴머니즘의 도입

앞서 지적한 대로 초기 행동주의문학 논의는 순수문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현구는 행동주의에 관한 최초의 비평 「불문단 사조의 동태」(『조선일보』 1935.1.1~4)에서 ‘페르낭데스 대 앙드레 지드의 논쟁’과 ‘페르낭데스

의 비평정신', '행동적 인간주의란 무엇?', '다양의 합일성적 동태' 등의 순서로 프랑스 행동주의를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행동주의가 좌익적 경향이 아니라 인간주의적 경향의 운동임을 밝혔다.

이헌구가 불문단 사조에서 문제가 되는 앙드레 지드, 로망 롤랑, 앙드레 말로, 마르셀 아를랑 등의 소개를 통하여 우선 드러내는 관심은, 행동주의 작가의 작품 행동보다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 행동주의를 그동안의 세계정세에서 온 것으로 보았으며, 불문단의 동태를 내일의 사상적 창조, 행동적 인간의 창조를 위한 고난의 전야로 본다.³⁾

또 불안에서 행동으로의 행동적인간을 선언했던 라몽 페르낭데스의 출현은, 2차세계대전 이후 1930년대까지 지식계급이 겪어온 극도의 사상적 불안과 정신적 항쟁의 결과로 읽는다.

정치적으로 코뮌리즘과 파시즘의 양 세력의 사이에 있었던 다다와 슈르리얼리즘 및 프로이디즘에 대한 혼동과 반동, 또는 회의 도피 반항이, 불안문학의 헌신적 구현자였던 마르셀 아를랑으로 하여금 「사상은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사상 그것은 이미 행동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자연스러운 전개는 희생에 달한다. 즉 자아주의가 의미하는 대상에 달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게 했으며, 페르낭데스가 이 행동의 경지란 「개인을 동시에 그 전체와 본래의 실재성에서 관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지」라고까지 한 점에 주목한다.⁴⁾

이헌구가 '고난의 전야'라고 했을 때, 프랑스 문학과 사상에서 모더니즘이 19C 유산을 청산했고, 행동주의는 그 역할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헌구가 행동주의에 거는 기대감과 열의를 읽을 수 있다. 그동안 프로문학 이론의 지리멸렬함과 일제 파시즘에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며, 미래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행동적 인간을 창조하려는 자유로운 의지와 열의가 프랑스 행동주의를 통해 촉발되

3) 이헌구 ; 「불문단 사조의 동태」(3), (『조선일보』 1935.1.4)

4) 이헌구 ; 「행동정신의 탐조」(3), (『조선일보』 1935.4.16)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현구의 태도는, 일본의 舟橋聖一이 암울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유와 의지로 가득찬 새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문학을 재출발시키려 했던 열의와도 통한다.

이현구의 사회적 관심의 초점은 문화옹호국제작가회의가 개최된 동기에 모아지며, 이 관심은 근본적으로 인간성 옹호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현구는 최근 2~3년간 세계문단의 동향 중에서, 히틀러의 쇄국적 문예 정책과 소련의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양극 사이에서 제기된 불문단의 행동주의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힌다. 1933년 지드의 전향과 34년 2월 소동으로 인하여, 불문단은 전통적 공화정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식세계 내지 사상으로 약진하려는 행동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다음, 이 행동주의가 새로운 전 인류에게 부여된 새로운 명제로서, 인류의 인간적 해탈과 동시에 인류문화에 대한 정당한 옹호의 길로 모든 이상과 의욕과 실천을 한 데 묶어서 나아가려는 결의임에 주목한다. 특히 1935년 6월21일부터 5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문화옹호국제작가회의는, 불문단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창조하였다는 의미와 세계의 모든 지식계급에 대하여 새로운 역사적 대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월 6일 소동이후 예술의 자유와 개인주의적 불안과 고뇌에서 탈출하고, 사상적 전향을 하려던 프랑스의 현대작가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을 완성하고 정당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적 정신과, 그 정신을 발전시키는 사상적 변혁이 필요함에 공감하였고, 행동주의는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자신을 인류문화의 옹호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가려는 이들의 휴머니즘이 집단적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이현구는 국제작가회의가 개최된 또다른 원인이 반파시즘에 있음을 주시한다. 과거의 국제적 우호와 친선을 목적으로 하던 펜클럽은 현실적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비하여, 현재 유럽 지식인들이 단결한 국제작가회의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상적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⁵⁾

이헌구가 보는 국제작가회의의 기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문학예술의 민중과의 공감문제이며, 둘째는 불문학의 전통적 정신과 인간적 제문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문제이다.

첫번째 문학 예술의 민중과의 공감문제는 서구 유럽의 부르조아사회, 즉 파쇼적이고, 우익적인, 국수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참다운 문학예술에 대한 공감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간사회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반파쇼국가를 지지하고 그 사회 달성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였던 불문학의 전통과 인간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헌구는 프랑스 행동주의가 불문단의 전통인 휴머니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불문학은 가장 총체롭게 그 사회의 인간성 도덕성의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모든 문학행동이 발전되어 왔으며, 그 추진력이 오늘날의 실천의욕을 강요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⁶⁾

이헌구가 국제작가회의에 관심을 보인 근본 이유도 궁극적으로 불문단의 전통인 인간성 옹호와 인간탐구에 있었다.

국제회의의 의의를 비상시적 방어수단만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게 인간적 권리를 찾게 하고 인류문화를 정상적으로 향수하려는 양심적이며 인간적인 욕구를 대변하고 옹호한 것이라고 밝힌 다음,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한 선두적 노력과 영광이 불문단에 선행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헌구의 견해는 그의 사상이 인간성 탐구에 바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 이러한 이헌구 사상의 극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의 말에 나타난다.

지난 세기의 세계도 현재의 인간의지 속에서만 의의를 가지며, 과거의 문명을 존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간적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용모 즉 문화를 재현하려는 곳에 의의를 가진다.⁷⁾

5) 이헌구 ; 국제작가회의가 개최된 동기와 원인의 필요성 (『조선일보』 1936.1.1)

6) 이헌구 ; 이번 대회의 역사적 기여 (1936.1.6)

7) 이번 대회의 역사적 기여(下) (『조선일보』 1936.1.3)

그러나 「문화적 적은 파시스트이다. 히틀러일파이다. 이 나라(프랑스) 민족주의자(나쇼날리스트)다」 「나는 회열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사회상태를 또 이 회열도 이를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을 상상하고 또 희망하고 싶다」라고 한 앙드레 지드의 표명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문화는 새로운 인간 사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불문학의 전통적 정신이 보여주듯이, 프랑스 문학자들은 항상 인간의 새로운 도덕성과 사회성을 중심과제로 형성해 왔는데, 그것은 바르뷔스 對 로망 롤랑, 또는 앙드레 지드 對 로망 롤랑의 문제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들도 오늘에 와서는 한 가지의 길을 발견하고 매진함으로써, 이들이 보인 각자의 개성과 의견 차이는 결국 인간성을 추구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또 인도적 입장에서 일생 전부를 작품의 인간성 추구에 바쳤던 로망 롤랑이 말한 바 대로,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사상은 모두가 예정된 바 실패이거나 또는 변절」이라거나 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간이란 자기 속에 커다란 내면적 생활을 保持하여 집단적 행동에 정력을 창출하는 인간이다」라는 표명에서 보듯이, 프랑스 문예 사조는 새로운 도덕적 인간상을 창출하고 발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고 결론짓는다.

앙드레 말로 작품의 의의와 인간적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결성을 찾는다거나 기분적 혁명 고양의 맹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문예의 가치는 바 인간문제의 더 깊은 관찰에서 부절히 움직이는 역사적 현실과 인간과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표현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태도이다.⁸⁾

20C 인간, 20C의 역사적이며 실존적인 인간 자체에 자유로운 창조적 활력을 부여하려는 근본적 문제에서 행동적 인간주의가 제창되었음을 밝힌 다음 덧붙이는, 이현구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소견은 그가 보여온 인간주의적 면모를 더욱 극명히 드러낸다.

8) 이현구 ; 「불문단사조의 동태」(3)

吾人は 인간된 인간성의 전 면모를 방불히 가지고 있는가? 더욱 오인은 이 불안과 회의의 세계에서 인간된 바 素性を 여하한 곤란과 압박 속에서도 전향시킬 탄력과 견고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금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의 生來的 근본의의와 그 존재의 실천적 생활력을 좌절, 배제하는 모든 불상사를 극복하며, 상극하고 자명하게 될 인간적 노력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⁹⁾

이상에서 보듯이 이헌구가 행동주의를 제기한 근본 이유는 불문단의 전통인 인간주의 정신에 깊이 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특성에 매료되어 프랑스 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장했다고 해도, 17C 이후의 휴머니즘적 전통이 파시즘이 대두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불안에 직면하여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 프랑스 행동주의가, 그런 전통적 기반이 전혀 없는 한국에서 그 본질대로 발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었다. 당시의 우리문단에는 과거의 문학적 전통에서부터 성숙되어진 인간존중의 정신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근대문학이라고 하면 개화기 이후 급격히 밀려온 서구문화와 문예사조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 급급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질적인 문학 정신들을 우리 체질에 맞도록 체화시킬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일제 파시즘하에 놓여있던 당시의 문단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전통이 싹틀 정신적 여유도 없었다. 실제로 뒤에 증명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는 일제 파시즘하에 놓인 지식계급의 현실에만 치중하여 논쟁형태로만 전개되는 변모를 보였고,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인 인간의 전체성 파악, 인간 존중의 전통이나, 그를 목적으로 한 작가의 모험적 행동은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 된다. 바로 이 점이 이헌구의 행동주의 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성이다.

이헌구의 인간탐구의 또 다른 이론적 근거는 벤자민 끌레류의 ‘행동적 신인본주의’에 놓여 있었다.

첫째, 행동하기 위해 생활의 제 이유를 발견하며 그를 창조하기 위하여

9) 이헌구 ; 행동정신의 탐조(6) (『조선일보』 1935.4.19)

인식한다는 것, 신인본주의는 의지적 건설, 의지적 창조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으며, 인간성의 새로운 제시를 위해 모든 선여적 한계를 거부하며 신의 존재까지 의존하지 않으며, 창조만이 목표이다.

둘째, 행동정신이란, 결국 '나는 인간이다'라는 표어에 귀착하는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이 소유한 사물일체에 명명하고, 표현해 가는 것, 그리하여 이 명명과, 표현이 여하한 실재나 피이에 대해서도 좌절되지 않는 것이다. 예술의 표현은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인 것이며 정신량의 증가가 예술 자체의 현현이라고 본다.¹⁰⁾

이현구는 이와 같이 인간 그 자체를 재발견하려는 것, 새로운 고전적 인간과, 근원적 인간의 탐구¹¹⁾에 행동정신의 전면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노력은 지식계급의 불안과 고민에서부터 촉발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현구는 유럽의 지식계급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근대 민주주의사조가 인테리겐차를 小自我의 장벽 속에 윤택시킨 데에서 찾는다. 결국 지식계급은 부정과 무관심과 영리함, 통일되지 않고 단절된 감정과 의지의 압축, 즉 펠립 수포(Philippe Soupault)의 이론바 「불안정한 圓-편편의 욕망」에 이르고, 여기에서 지식계급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현구는 불안을 단순한 도피나 고칠수 없는 태도로는 보지 않는다. 불안 즉 부정적 무심상태는 사상적 상극 또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침입하려는 감정상태로 보며, 또한 이 시대와 전통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현구는 부르조아지의 안일된 물질적 세계에 대하여 현명해야 될 인테리겐차가 그 지위를 변환시키려는 초조 속에 고민하고, 또 지식인의 본령을 떠나 인간성의 의미를 망각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생기는 불안과 초조 속에 묻히게 되었다고 본다.¹²⁾

10) 이현구 ; 같은 글(6)

11) 이현구 ; 같은 글(3)

12) 이현구 ; 같은 글(4)

그러나 이현구가 파악한 유럽 지식계급의 불안은, 우리문단 지식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농경사회였으므로 근대산업사회의 구조나,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 민주주의사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지식계급이 불안을 느낄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부르조아지 계급이 진정으로 존재 가능한가부터가 의문이며, 그러한 지식계급의 불안에서부터 촉발되어졌다고 파악된 프랑스 행동주의의 면모가 한국문단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 점이 또한 이현구의 행동주의 논의가 안고 있는 또다른 한계성이다.

이현구에게 행동주의란 지식계급의 당면과제에 대한 종합적 귀결이었다. 이현구는 지식계급의 인격적 존재 의의는 항상 양심적 행동성에의 관심과 이해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므로 문예가의 사명은 정치적 행동성에 있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정치의 개량적 운용에 대하여 인간성의 옹호와 그 주장에 있다고 밝혔다.¹³⁾

그리고 「정치와 문학」에서 「시의 행동성과 예술의 공리성」¹⁴⁾을 주장했던 페르낭데스의 정치적 관심에의 전향적 태도는 그것이 단순히 코뮌리즘의 이론에서 출발하였다고보다도 새로운 세계에 능동적 역할을 할 지식계급의 당면과제에 대한 종합적 귀결¹⁵⁾이라고 주장한 데서 드러난다.

이현구가 페르낭데스의 정치적 전향을 통해서 밝히려고 한 것은, 행동주의가 지식계급의 당면과제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 지식계급의 당면과제는 코뮌리즘이라는 정치적 행동보다는 인간성 옹호라는 양심적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이현구가 행동주의의 발생동기가 지식계급의 당면과제라고 했

13) 이현구 ; 같은 글(5)

14) 페르낭데스의 이러한 면모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으려는 현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바 정신(에스프리)를 가진 한 수단이다. 그는 세계를 정신화하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하여 예술의 공리적 견해를 펴는 것이나, 「나는 이 정치적 경험에서 실로 선량한 신념-이 신념은 나의 지위를 발전하는 도움이 될 뿐 아니라-이를 가지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각국인의 시적 정치를 평가함에 전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서도 잘 드러난다.

15) 이현구 ; 같은 글(6)

을 때, 이현구의 행동주의는 일제 파시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지식계급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자각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성을 옹호하기 위한 지식계급의 자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해외문화파로서 프로문학의 이데올로기 편중성과 정치적 목적성에 대해 왔으나, 프로문학이 퇴조한 시점에서는 반마르크시즘적 의미보다는 반파시즘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현구는 행동주의를 통하여 프로문학의 정치성과 일제 파시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문단에서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학 전통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현구의 행동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전체성’ 파악보다는 인간성 옹호를 주창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더 중시함으로써, 프랑스 행동주의와는 다르게 변모된다. 이는 당시의 우리문단에는 인간존중의 전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근대산업사회 구조와는 무관한 농경사회였다는 이질적 상황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것이 이현구를 비롯한 우리문단에서의 행동주의 논의의 한계이다.

이와 같은 이현구의 人間主義 경향은, 당시 KAPF문인이던 백철이 이미 1933년부터 전개해 오던 인간탐구의 정신과 같은 맥락의 것이며, 후에 휴머니즘에 귀착되게 된다.

Ⅲ. 함대훈의 지식계급론

또다른 순수문학자 함대훈이 보인 사회적 관심은 조선 지식계급의 현실이었으며, 조선 지식계급이 느끼는 불안이 그의 행동주의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함대훈의 행동주의는 조선 지식계급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채택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불안의 원인인 일제 파시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수단이었다. 그가 조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문인들의 지식계급연맹을 결성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일제 파시즘에 대

한 저항의 실천을 의도한 것이 된다. 프랑스 지식계급이 급진적인 지식계급연맹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파시즘에 저항했던 행동주의의 본령을 이해한 것이었다.

그가 조선현실을 비판하고, 조선문학을 조선현실과 관련시켜 규명하려 하였을 때, 이러한 태도는 프로문학관과 일치하게 된다.

불안한 조선현실과 침체된 우리문단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이상, 그가 해외문학과로서 순수문학을 견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함대훈이 표방한 행동주의는 좌익이든 비좌익이든 그 사상적 성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물론 그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전력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더욱 더 악화시켰으리라고 본다.

함대훈은 먼저 조선의 현실이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지식계급에게 생활상 사상의 지주를 굳건히 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요, 조선의 지식계급은 오랫동안 이 사회의 불안 속에서 경제상 정신상의 동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지식계급적 문인은 어떤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금후 조선의 문학은 조선 현실의 중대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지식계급 문제를 신중히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¹⁶⁾

그러므로 함대훈은 조선지식계급이 느끼는 불안의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러시아 지식계급의 변천사와 세스토프 철학을 끌어들인다.

1890년대는 문예의 발흥시대이면서 사회 경제적 전환시대였는데, 자본과 노동 앞에 아무 기반이 없던 지식계급은 해체될 운명에 놓이고 동요하게 된다. 종래 자기 계급의 지위를 고수하려던 일부 지식계급은 점차 몰락되어, 러시아 지식계급은 절망, 불안, 공허, 회의에서 방황하게 되고, 19C말에서 20C 초엽에 러시아 문학은 '死의 찬미와 동경'이라는 지식계급의 고민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안톤 체홉의 <이봐노프>에는 주인공의 우유부단, 의지 박약, 피로권태의 모습이나 아무렇게나 되어라 식의 냉담한 모습, 햄릿식의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안드레 예프의 여러 작품에 담겨 있는 예술가로서의 안드레예프의 심리, 사상, 견해와 절망적인 염세관, 미

16) 함대훈 ;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문학의 장래성(1)(『조선일보』 1935.3.30)

래에의 불신, 死와 암흑에 대한 집착 등을 당시 러시아 지식계급의 전형적인 특질로서 파악하였다.¹⁷⁾

함대훈은 세스토프 철학의 기초가 당시 러시아 지식계급의 불안의식을 비극적으로 해석한 데에 있다고 보고, 당시 의지할 곳 없는 러시아 지식계급의 절망이 염세주의의 절정에 달하여 비극적 昂揚시대가 왔고, 모든 것을 비극적으로 사유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즉 세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은 첫째, 마르크스주의 또는 실증주의 또는 이상주의에 불만족하여 이를 초극한 위에 둘째, 도스토예프스키 및 입센의 비극적 사상을 연구하였고, 그 위에 셋째, 자기의 비극적 부정부주의적 개인주의를 확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세스토프의 비극철학의 근본사상이 세기말적인 불안과 절망의 표현만이 아니요, 그 불안과 절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인가 새로운 이상을 찾으려 한 것임을 밝힌다.¹⁸⁾

그러므로, 함대훈은 근본적으로 지식계급의 불안을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가 러시아 지식계급의 동태와 러시아 지식계급의 면모를 통해 불안의식을 규명하려 한 이유는 조선 지식계급과 조선문학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제 파시즘하의 조선의 사회현실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였다. 함대훈의 강렬한 행동의지는 실제적으로 지식계급연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함대훈은 우선 조선 지식계급 운동에 대해 집단성이 안 보이며, 조선문학에도 고민상의 집단적 표현이 없다고 밝힌다. 인테리의 고민은 개인적인 것으로 혼자서 불안해 하고, 절망하며, 염세주의에 방황하는 것일 뿐이며, 사회사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서의 불안 절망 방향이 없는 듯하며, 따라서 지식계급을 다룬 작품도 개인 생활상의 고민밖에는 그리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계급이 막연히 불안 고민 속에 헤매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조선의 지식계급의 고민과 절망, 그리고 절망적 분위기의 근

17) 함대훈 ; 같은 글(2)

18) 함대훈 ; 같은 글(4)

본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붓끝으로 묘사하여야만, 조선문학과 지식계급의 연관성이 더욱 밀접해 지며, 인테리를 취급하는 조선문학의 장래성이 생겨난다고 소견을 덧붙였다.

그런 다음 함대훈은 그 구체적인 창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근대 프랑스 문학의 불안시대에 있어서 제 작자가 취급한 것과 같이 그들의 지식계급이 「지식을 취급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理想, 생을 구하는 성급한 심정, 범람하는 사상 가운데 인테리가 여하히 퇴색된 현실의 파편으로서 꿈을 만들고, 여하히 쇠약한 문학을 남긴 것」을 그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창작 이론을 위해서 창작을 잊어버리고, 생활이론 때문에 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기묘한 그러나 시사에 풍부하고 미묘한 딜레마에 빠진 초조와 고통」 「우는 심정과 그 옆에서 냉소하는 이지」와의 사이에 끼인 혼의 고민, 행동의 불능 말하자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는 곤란한 것을 몸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¹⁹⁾

아울러 지식계급 문인의 근본 태도로 첫째, 조선인의 생활 특히, 인테리 젠체의 고민에 대해서 진실한 고민을 작성해야 하며, 둘째, 이 시대 양면의 사회정세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고 창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들고 있다.²⁰⁾

함대훈은 또한 가장 본질적 문제인 고등 지식계급의 고민 문제는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데에 있으므로, 생활상의 안정 즉, 직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조선문학은 불안한 지식계급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조선 지식청년들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면모를 그려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의 지식계급의 양상과 그 불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창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선문학의 장래성을 도모하려고 한, 함대훈의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창작방법의 구체적인 제시는 행동주의 논의 전개상의 최초의 시도임을 주지해

19) 함대훈 : 같은 글(6)

20) 함대훈 : 같은 글(6)

야 할 것이다. 특히 함대훈이 조선문학이 지식청년들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면모를 그려야 한다고 한 점은, 앙드레 말로 등의 프랑스 행동주의 작품의 진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함대훈의 바램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 지식청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실제로 산출되어졌다면,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함대훈이 가장 중요시한 점은 조선지식계급의 현실과 조선문학의 장래성이었다. 그것은 지식계급연맹결성을 통한 적극적 행동을 보이기 위한 기초적 검토작업이었고, 결국 함대훈이 제기한 행동주의의 면모는 지식계급 연맹을 결성하자는 주장에서 드러난다. 불안한 정세하에서 조선의 지식계급 문인들이 어떤 연맹을 만들어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호 비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식계급연맹을 결성하자는 함대훈의 주장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급진적 지식계급연맹을 결성했던 것을 주목한 것이며, 우리문단에서 지식계급연맹의 결성을 주장한 최초의 논의이며, 함대훈의 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²¹⁾ 또한 한국 행동주의를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부합시킨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인이 신건설 사건 이후에 구속 또는 수감된 상태여서 그 구체적 실천이 불가능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함대훈은 지식계급의 조직체를 만들어 지식계급의 본질을 규명하고, 동태를 주목함으로써, 文人이 行動精神을 가질 수 있고 사회와의 관련성도 밀접해 질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만 조선문학도 좀더 사회현상의 생생한 사회사실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지식계급의 조직체 구성, 지식계급의 본질규명, 동태파악’은 마르크스 문학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작가의 “사회현실의 계급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작가의 “행동정신”이 산출된다고 보는 관점은 문학사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

21) 함대훈 ; 같은 글(6)

문학론과 일치한다.²²⁾ 다시 말해서, '작가(지식계급)의 사회현실의 계급론적 인식과, 문학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인식'을 통해서만, 작가의 '행동정신'이 산출되고, 이로써만 조선문학의 발전과 장래성이 보장된다고 본 것은 함대훈의 행동주의가 전형적인 프로문학관에 토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 동경외국어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31년 <극예술 연구회>동인으로 러시아 문학의 번역과 소개에 힘썼던 그의 前歴이 보여주듯, 행동주의 논의의 시각이 프로문학론의 관점에 놓여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동주의가 조선사회현실의 불안과 우리문단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이상, 그 사상적 성향의 좌익 여부는 부차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종합해 볼 때, 함대훈의 행동주의는 조선사회와 조선계급의 불안과 우리문단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양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나아가서 그 불안의 원인이 되는 일제 파시즘에 대한 적극적 저항 양식이었다. 그 구체적 행동으로서 표방했던 지식계급연맹의 결성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를 프랑스 행동주의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르크스주의 문학관에 입각하여 조선사회와 조선문학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창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주의 작품의 산출을 기대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전체성 파악'이라는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논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 '행동정신'을 '불안사상' 문제 및 '지식계급문제'와 함께 관련시켜 논의한 최초의 글이었으며,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를 지식계급문제에 편중되도록 이끄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함대훈이 '좀더 사회현실의 생생한 사실을 토대로 해야만 조선문학의 발전에도 힘이 된다'고 하여, 사회현실과 행동주의 문학과 관련성을 강조한 이후, 이봉구의 短評 「정열의 빈곤」과 노천명의 短評 「擬製左翼」도 각각 '현실적 리얼리티'를 행동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게 된다.²³⁾

22) 함대훈 ; 같은 글(6)

23) 李鳳九가 短評 「정열의 빈곤」,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2.9)에서 말하는 요

Ⅳ. 유치진과 능동정신

역시 해외문학과 출신이었던 유치진의 행동주의 논의도 다른 순수문학자들처럼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유치진의 행동주의는 일본문단의 불안한 현실을 간파하고 그를 극복하려는 의지로서 새로운 능동정신을 표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문단의 불안과 능동정신의 문학」(『동아일보』, 1935.5.23)에서 유치진은 우선 일본문단의 몇 가지 현상들을 불안의 표징으로 파악한다.

우선 저널리즘에 끌려다니는 일본문단 현상을 가장 단적인 증거로서 제시한다. ‘일본문단에는 쫓대개 없고, 저널리즘에 의해 지배되며, 문학은 저널리즘의 노예’라고 비판한다.

또, 좌익작가의 전향문제도 ‘이상을 잃고서 쫓대없이 외적 조건에만 몰

접은 다음 몇 가지이다.

상아탑 속의, 현실을 떠난 예술은 지나갔다는 것과 예술은 결코 정치적 도구나 이용물이 아니며 예술만의 독자성이 있다는 것, 오늘날의 文化는 反動(나치즘)의 압제 밑에 고민하고, 문학이 인간의 고뇌와 불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파리에서 열린 「문화옹호국제작가회의」의 의의는 크다는 것, 천박한 俗衆과 생활과의 타협은 작가의 타락이며, 위대한 예술은 피서린 정열의 전쟁터를 통해서만 움트며 명예로운 것이다. 우리문단에는 그런 정열이 빈곤한데, 조선문학의 건설을 위해서도 창작의 才分보다 모든 고난을 넘어서 정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장의 순수예술적 수련과 독창적 개척과 진격한 리얼리즘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동주의의 선구자 라몽 페르낭데스가 파리 2월사건(1934.2)에 자극되어 1935년 2월 『N.R.F.』지에 「정치와 문학」을 논하면서 ‘힘과 생활을 결부시킨 詩, 정치적인 詩’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여 詩의 행동성과 예술의 공리성을 주장한 사실과, 앙드레 말로가 2차 대전시 비행기 안에서, 파괴된 지하실에서 원고를 씌우므로써 행동을 통한 인성의 전체적 표현을 시도했었던 사실들에 착안하여, ‘현실을 떠난 예술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핵심인 것으로 강조한 단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천명도 「擬製左翼」(『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10.23)에서 ‘행동을 떠난 사상은 枯渴한 思想이다. 작품의 사상성이란 좋은 행동의 동기를 지어주는데 가치가 있다. …… 그 사상은 깊은 체험과 관조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야 비로소 남의 감정을 혼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 하여 행동 또는 리얼리티를 통한 작품활동을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해년 ; 「1930년대 후기 신문 短評연구」 PP.66~69.(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2)

러다니는' 불안의 표징으로 본다. 그는 片岡鐵兵의 고백을 통해서 프로작가의 전향을 '새로운 정치적 입장보다는 …… 대부분은 물려오는 객관적 정세에 못 견디어서 하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불안을 극복해 나갈 현실적 조건을 일본문인들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불안과 초조가 일본문단을 억누르고 있으며, 일본문인들은 중심없이 외적조건에만 물리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문단에서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가 '막연'했던 것도 불안의 표징으로 제시한다. 인간의 浮動하는 생활 즉 불안한 생활을 그리는 것이 리얼리즘이지만, 그 정의가 너무도 '막연'한 것은 그들에게 생활적 원칙이 없고, 일본문예에 주된 코-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유치진이 제창한 능동정신은 '불안의 공세에 대한 반항'이며,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고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약점을 뛰어넘어서 자기극복의 경지에 도달시키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인간의 승리와 패배에 굴하지 않는 의지의 발견을 지표로 삼는 새로운 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문학에 주입시키려는」 것이었다. 유치진의 논지가 이러한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 유치진의 행동주의의 논의는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근거에는 舟橋聖一이 표방한 '의지적 자유주의'가 깔려있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유치진의 행동주의에서, 프로문학 작가를 전향시키고 불안하게 했던 객관적 정세란 바로 일제 파시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에

24) 유치진은 舟橋聖一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능동정신 문제를 전개해 가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일본문예계의 현상은 바야흐로 참담한 인간의 패배감 내지는 그것을 관찰하는 불안과 회의의 파국성의 나열에 불과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진보적인 근대주의, 의지의 문학, 신리베랄리즘, 詩的 정신, 신리얼리즘 등의 새로운 정신을 대망한다 …… 쓸데없이 말초적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던 근대주의문학이 몰락과 정체의 고난을 겪어서 새로운 「의지의 힘」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舟橋聖一 ; 자유주의 문학의 제창, (『신조』, 1934.7~9)

유치진 ; 일본문단의 불안과 능동정신의 문학, (『동아일보』, 1935.5.11)에서 재인용.

대한 반발로서, 제창된 능동정신은 바로 반파시즘적 성격을 띠며, 또한 프로문학자의 재기라는 의미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치진이 보여주는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되어, 결국 유치진의 행동주의를 마르크스주의적 좌익공식론으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결말에 붙인 다음과 같은 단서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의지적 경향이 어느 지표로 나아가느냐? 즉 사상적으로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장차 대개 우리의 주목을 끌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이 능동정신이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는 한에서 사실 무의미한 표면적 논란에 불과한 것이다.

능동정신조차 좌익이나 우익이나 하는 사상적 경향에 치중하여 파악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V.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론과 순수문학자의 사회적 관심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초기 행동주의문학 논의의 가장 주된 특징을 지적한다면, 이들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논자들의 대부분이 순수문학자들이었다는 점이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순수문학적, 예술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실문제에 관심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프랑스 지식계급이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인간의 문제, 인류공동의 과제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인 현실에 직접 뛰어들었던 사실에 자극 받았고, 그 때문에 그동안의 순수예술적 영역에서 떠나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이들 순수문학자들은 무기력하게 불안에 떠는 지식계급과 침체된 우리문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일제 파시즘임을 공감했다.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일제 파시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행동주의를 표방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주의의 의미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순수문학자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은 결국 프로문학적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초기의 행동주의 논의는 프로문학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후의 행동주의 논의가 프로문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도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²⁵⁾

25) 이해년 ;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12) pp.311 ~ 334.참조.